

티베트 · 히말라야 · 네팔의 균류자원

이학박사 이 지 열

전 전주교육대학장, 한국균학회장, 한국임산버섯연구회장, 한국식물분류학회장
현재 한국티베트연구소 부소장

필자는 다른 한국티베트연구소원 6인과 함께 1997년 6월 5일부터 동월 30일까지 중국의 티베트 · 히말라야 · 네팔의 자연, 특히 균류(버섯)상과 식물상을 탐험하고 와서 그 결과를 보고한다.

6월 5일 서울출발 상해착(아시아나 항공). 상해공항에서 베이징에서 온 중국 민족여행사의 남미화안내원(여성, 요녕성 전문대출신, 교포)의 안내로 점심(한국식당)을 먹고, 공항으로 돌아왔다. 그 전에 항공기의 출발시간이 변경되어 체크인하기 까지 짐보관소에 보관료를 짐하나에 3원(元)씩 물었다. 서울서 6인의 짐은 180kg으로 60kg over인데 우리나라 비행기회사이기에 무료로 해주었으나 이곳에서는 안된다기에 각자 10kg짜리 하나씩을 들고 들어가기로 했다(1\$=8원).

또 공항에서는 성도에서 파일까지갈 안내원 P씨(영어능통)와 소형승용차 2대(도요타)와 운전수 2명이 왔었다.

상해를 출발한 중국민항기는 2시간반만인 하오 9시에 성도공항에 도착하였다. 짐을 챙겨 초대소에 짐을 두고 식당에서 식사를 하였다.

성도는 사천성의 수도로서 인구 20만정도의 도시이다. 사천성은 중국의 양산곤, 등소평, 강택민의 출생지로서 인구 1억2천만, 각종자원이 풍부하여 자급자족하는 살기 좋은 곳이다. 중국 3국지에 나오는 제갈공명의 활동무대이기에 그의 사당과 시인 토포의 사당도 시내에 있다. 지하자원으로는 석탄 · 석유도 많이 매장되어 있다.

6월 6일 아침 6시에 기상하여 안내원과 P씨를 데리고 택시로 성도식물원에 사진을 찍으러 갔다. 왕복 80원 거리였다. 해발 750m인 언덕에 자리잡은 평범한 식물원으로 아직 직원이 출근하지 않아, 명함만 주고 사진 10컷을 찍고 들

아와 식사를 마치고 여인국을 향하여 8시반에 출발하였다. 식사는 고급이었다. 도중은 포장된 평탄지로서, 논의 벼가 잘 자라고 풍요한 농촌 등을 지나 309km를 쾌속으로 달려 석면(石綿)에서 숙박하였다.

6월 7일 석면발 서창을 거쳐 평야지를 건너 염원(?源)까지 와서 그곳에서 쉬었다(401km).

6월 8일 염원을 출발하여 영랑을 거쳐 폭우로 길이 막혔다하여 우회로로 더 뛰여 여인국에 도착하는 도중은 고산과 심산 협곡으로 경치가 좋았다.

여인국에 도착하기전 앞의 고개에서 내려다 본 광경은, 로호호(蘆戶湖)는 화산분화구에 물이 고인 맑은 물의 호수인데 큰 물고기가 살아 고기배, 낚시배가 보였다.

여인국 초대소에 짐을 풀고 8km쯤 떨어진 여인국 영영(永寧)읍을 찾아가는데 산속길 옆에는 소, 말, 양들이 한가하게 풀을 뜯고 군데 군데에는 아름답디 전나무의 저목장이 있었다.

부락 중앙에 찰미사(札美寺)절이 있고 라마교를 신불한다고 들었다. 부락의 1여인가정을 찾았는데, 2층이고 아래층 중앙에 불당이 있고, 옆에 주방과 침실이 있었고, 또 가축들의 마구간이 있고 노파 한분이 들어와 손자를 안고 있었다. 모계사회로, 남편은 판곳에 그 노모와 살고, 보고 싶을 때 오라하여 보고 가고 부인의 원조로 생활하며 자녀들은 모친의 성을 따라간다고 한다. 우리나라 K.B.S가 와서 촬영, 방영하였다 한다. 자녀교육과 재산관리 등 일체의 권한을 모친이 행사한다.

초대소에서 석식 후 청년남녀의 무도회를 보았는데 근대 음악과 댄스를 남녀들이 하고 있었다. 또 우리나라 “강강수월래”와 같은 노래를 남녀교대로 하고 있었다.

식사에 느타리(재배한)요리가 나왔다.

6월 9일, 노호호를 떠나 영랑, 영승(永勝)을 거쳐 고개를 넘어 운남성의 리장(麗江)에 도착하였다. 285km를 달렸다. 해발 2,400m, 경치가 좋은 곳으로 송림이 울창한 곳이다. 필자는 두번째 와서 반가웠다. 시장에서 건표고(자연산) 100g에 3원하더라.

고산병예방용 홍탕을 1근에 3원씩 대량구입하였다. 오리와 목이버섯요리가 나왔다. 이제까지는 음식이나 고산병증세로 고생은 하지 않았다.

6월 10일 리장을 떠나니 멀리 옥룡(5596m), 합파(5395m)설산이 보이고 길은 난창강(메콩강상류)을 따라 가는데, 좁은 급류를 호도협(虎跳峽)이라 하여 불만한 관광지로서 들어가 보았다. 고원에는 소 목장이 있고 침엽수림과 철쭉관목이 우거져 있으며 중전(中甸)까지 153km를 달려 해발 3,400m까지 올라왔다.

6월 11일 중전을 출발하여 184km되는 덕흠(德欽, 해발 3,700m)까지 왔다. 도중에 매리설산(梅里雪山)을 볼 수 있었다. 1991년 일·중공동등산반 17명이 이곳 6,540m 고봉에서 전원 조난 사망한 바 있다.

고원에는 방목장(양, 소, 야크, 말, 당나귀)이 있고 민가 2층은 흙으로 다져 마당으로 쓰고 있다. 초등학교들께 과자를 주었더니 좋아하나 여아가 수가 적은 것이 눈에 뜨인다. 채집할 만한 숲이 전무하다. 두통이 심하다.

6월 12일 덕흠을 떠나 해발 4,300m인 망강(芒康)을 향하여 출발하였다. 난창강을 따라 224km의 길은 고산을 갈지자로 끝없이 올라가 발바닥이 간지러울 정도로 오금이 오싹하다. 고산증세를 막기 위하여 아침에 홍탕 30g, 그리고 우황청심원 1개, 아스피린 1알을 모두 복용하였다. 펜잘을 들었더니 두통이 좀 나아왔다. 염정(?井)고원은 군데 군데 숲이 있어 처음으로 다공균버섯 수종을 채집하였다. 티베트에 들어왔다.

산길에서 큰 독수리 2마리가 앉아 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 옆에는 어린 양한마리가 죽어 있었다. 티베트특유의 조장을 실감케 하였다. 화장실이 불편하였다.

6월 13일 망강을 출발하여 해발 5,000m의 설산을 지나 난창강을 건너 고산도로 공포속에 삼림이 없는 불모지를 지나 좌공에 갔다. 초대소는 3인 1실이고, 세수대야 하나를 주며 물을 길러 세수하라 하고, 화장실은 개방식이었다. 마당에는 아람드리 전나무가 장작으로 패지고 있어 아깝고 또 민둥산을 만드는 원인을 알았다.

전원이 설사를 하며 고산병증세에 시달렸다. 해발 4,000m이다.

6월 14일, 좌공에서 일어나자 고산증세에 시달렸고, 다음 목적지인 연오(해발 3,990m)를 향하여 출발하였다. 고원은 황무지로서 산림이 전무하고 도중에 업라산(4,618m)상봉을 지나 민가가 거의 없는 군부대초대소에 이르렀다. 전기도 물도 없는데 주인없는 개는 우글 우글 개방된 화장실을 위협하여 무섭기 한이 없다. 297km를 달렸다. 연오(然烏)에 도착한 것이다.

6월 15일 일찌기 연오를 출발하여 129km인 파미로 향하였다. 고원의 경치가 아름답고, 호수와 도로도 좋고 후반은 산림이 우거져 도중 버섯 6종을 채집하였다. 파미의 초대소와 식당은 양호하였다. 초대소에서 폭죽행사가 있는 것을 기관총 총격으로 알고 빨리 실내에서 뛰어 나가려하는 웃지못할 행동을 하게 되었다. 해발 2,700m, 고산병증세에는 많이 적응되어 두통과 설사는 가셨다. 파미박.

6월 16일, 비오다. 여행허가 일정보다 2일이 빨라, 공안당국으로부터 전진 불허되어 2일간 휴식하기로 하였으나 종일 강우로 낮잠을 잤다.

운전수 일당 15\$, 안내원 20\$씩 청산, 200\$씩 냈다.

6월 17일 오전중 우천, 오후에 주위의 산림내에서 버섯, 20여종을 채집하였다.

6월 18일 파미를 출발하여 215km되는 린즈(林芝)로 향하였다. 주변은 울창한 침엽수림이 있고, 길옆 저지에는 노랑(魯郎) 초원이 있어 방목지로 되어 있다. 도중 산사태로 길이 무너져 하오 4시경까지 5시간을 기다려 짐을 지고 교체된 승용차에 올라 조금씩 경사진 길을 따라 씨쩌라산(해발 4,600m)의 4,000m지점에 이르렀다. 이곳에서 약 1시간 버섯을 10여종 채집하였다. 이곳에서 동충하초를 시간이 없어 채집하지 못하고, 주민으로부터 1개 1,2원씩에 각자 300원분을 샀다.(125원, 한화):이곳은 비등점이 80°C이다. 버섯 채집 적지이고, 활동시 저기압으로 몸의 균형이 잘 안잡혔다. 밤 10시가 넘어 린즈읍을 지나 팔일진(八一鎮)에 11시에 도착하였다. 깨끗한 소도시로서 초대소도 깨끗했다. 앞집에

서 식사하고 1시에 잠자리에 들었다.

6월 19일, 81진에서 오늘중에 티베트의 수도 라사에 들어가야 하는데, 북로는 420km, 남로는 668km이나 도중 도로파괴로 북로가 두절되었다. 원거리인 남로로 가야하므로 아침 6시 기상, 6시 40분 81진을 출발하여 미림(米林) 가는 도중에 버섯을 20종 채집하여 촬영하였고, 10시에 미림에서 조식을 들었다. 미림에는 숲이 없었다. 하오 3시에 낭현에서 점심을 들고 5,100m고개를 넘는데 차가 진흙탕물에 빠져 고생을 했다. 밤 10시쯤 저당에 도착하여 식사를 하고 초대소에 투숙을 신청하였다. 숙박지가 라사이므로 불허하고, 할 수 없이 183km를 밤새도록 더달려 6월 20일 새벽 3시에 라사의 홀리데이인(住假日) 숙소에 도착하였다. 해발 3,640m이다. 호텔에서서는 산소가스가 방출되었다.

6월 20일 아침 7시 기상(3시간 수면), 양식의 맛있는 식사를 오랜만에 들었다. 호텔도 훌륭하다. 외국인 손님이 대부분이다. 다시 라사지구 안내인이 추가되었다. 베이징 여자대학을 나온 27세 부인인데 영어를 곧 잘 한다. 오늘은 시내 관광일정이다. 추가대원 신사장(초등학교 5년생부친)이 그저께 와서 김치를 손수 한 양동이 담아 놓았다. 그는 두번째왔는데 첫날밤은 무사했으나 다음날은 두통과 어지러움의 고산병으로 큰 고통을 치렀다한다. 즉 고산병적응이란 면역력이 1년이 못간다는 증명이 된 셈이다.

전원은 포탈라궁의 구경을 가고 나와 단장은 베이징 안내원 남양을 데리고 우선 티베트대학의 식물학교실을 방문하여 단장님의 채집품 감정을 의뢰하고, 곧 티베트 고원생물연구소로 소장을 만나러 갔다. 마침 오늘 아침에 독일에서 귀국하였다 한다. 나의 한국버섯도감을 선사하니, 티베트버섯도감과 동충하초 연구서적을 주었고, 단장께는 “티베트 경제식물” 책을 선사하였다. 내년부터 한중양국이 티베트 버섯 공동연구를하기로 합의하고, 곧 포탈라궁앞에서 사진 촬영을 마치고 대소사(大昭寺)를 견학하고 그곳에서 오체투지(五體投地) 광경을 목견하였고, 그 절주변을 뺨돌아 기념품 쇼핑을 하고 리부링카 저택(망명 다라이 라마저택)도 구경하고 저녁은 식당에서 들었다.

6월 21일 아침 동충하초의 조직배양을 맞추었다. 10시에 히말라야지방을 거

쳐 네팔로 가기 위하여 첫목표지인 시가체로 향하였다. 거리는 345km이다. 라사를 출발하여 수심이 얇고 강폭이 넓은 강을 따라 곡수(曲水)에 오기전에 암벽에 좌불상이 새겨진 것을 볼 수 있었다. 주위는 식물을 볼 수 없는 회색암산으로, 인가도 없는 황량한 고원을 달린다. 알룽창포강을 건너, 도중에 무너진 토담집흔적(군막사)을 보며 점심을 먹었다. 전방의 도로가 무너져(12:30) 기다리니 하오 9시에 개통되어 12시 30분에 시가체 호텔에 도착하여 1시에 석식을 들었는데 면이 맛있고 맥주도 한잔하였다. 이곳은 해발 3,900m로 조금 올라온 셈이다.

6월 22일 호텔에서 아침 7시 기상. 조식후 시내관광에 나섰다. 이곳은 티베트 제2의 도시로서 큰 사원 카시룸보가 있는데 14세기에 건립되어 전에는 4,000명의 승려가 살았다고 한다. 근년에 다라이 라마의 정적인 판첸라가 살았는데, 군부와 협력하다가 청해에서 사망했다한다. 절안에는 수십마리의 개들이 여기 저기 뭉쳐 있다. 야견이며, 주민들은 부처님에게 안내하는 사자라고 믿고 무조건 먹이를 주어야 한다고 한다. 거지에는 아무것도 안주는 것과 대조적이다. 금·은·동을 펴부어 중들은 이속에서 비교적 호화스러운 생활을 하며 주민끼는 오로지 부처만 온종일 믿게 하여 주민들은 빈곤할 수 밖에 없겠구나 생각했다.

티베트는 광량한 암산, 석산에 사람이 사망하면 묻을 수 없어 주로 절에서 조장(鳥葬)을 한다고 한다. 노승이 시신을 잘게 잘라 놓고 독수리를 부르면 수십마리의 독수리가 날라와 순식간에 시신들을 먹어치우고, 남은 뼈들은 개의 차지라한다.

시가체를 출발하여 황량한 암산길을 올라가며 좌출라고개(해발 5,050m)에 도달하였다. 라마교의 신앙표시인 기빨뭉치옆에 해발표시판이 있었다. 고산병증세는 전무하였다. 조금더 가니 에베레스트(초모랑마, 해발 8,848m) 입구의 영문 뜻말이 왼쪽에 있었다. 그리고 왼쪽에 멀리 히말라야산봉의 흰 빙산들이 보였다. 높은 산봉오리하나를 넘어 151km의 곳인 라쩌에서 점심을 먹었다. 거지가 족들이 빈 강통으로 악기를 만들어 연주하며 구걸을 한다. 개는 대접받는데 왜 사람은 천대하는가?

민가가 전무한 황무고산을 수시간 달리는 도중 검문소가 여러곳 있어 여행 증명서의 검사를 받았다. 81km의 험한 길을 더 달려 밤 8시에 해발 4,300m에

있는 덩굴리(定日)에 도착하였다. 대원중 1명이 심한 두통과 정신을 잃으려 하여 고산병증세를 보여 우황청심환 2개, 구급산소를 공급하니 1시간후 호전되었다.(이 대원은 작년에 이곳에 온 경험이 있었다.)

6월 23일 덩굴리 출발에 앞서 인근 주민목축 농가를 방문하였다. 아침이니까 아직 가족 부부, 자식 합 4명이 마당의 가축을 몰고 먹이려나가려 하든 참이다. 경제권, 호주권등을 부인이 장악하고, 다른 가족들은 절대복종이다. 재산은 헤어진 천막과 가축은 돼지 20마리, 양 30마리, 야쿠 20마리, 소 20마리, 조랑말 20마리, 당나귀 10마리정도 총 120마리 정도이다. 여자의 수가 적어 1처다부제인데, 이집은 아마 다른 남편은 멀리 일나갔을 것이다. 식사는 보리갯떡 반장, 우유(마유) 한사발, 버터, 치즈 한토막이다. 주변에서 엠모나이트 조개화석을 주울 수 있다는 것은 이곳이 옛날에는 바다라는 증거가 된다.

아침 11시에 덩굴리를 출발하여 장무까지 242km를 가기 위하여 나라무로 향하였다. 도중은 회색암산들이고, 통과패스(해발 5,200m)를 넘었는데 근처의 설산을 지났다. 일행은 나라무(해발 3,700m)에 도착하여 점심을 먹었는데 이곳은 산벽도시였다. 이곳에 오기전에 유목민들의 이동광경을 보았다.

작년에 이 대원들이 나라무 남방폭포근처에서 채집한 버섯복균류를 다시 찾기 위하여 1시간여를 노력하였으나 찾지 못하고 뽕나무 버섯등 수종을 채집하였다. 이제부터는 3,700m에서 장무(璋木, 해발 2,000m)까지 급경사를 급하강하는데, 우천으로 잘 보이지 않으나 침엽수림과 활엽수림이 울창한 난대림이었고 위험한 도로였다. 장무는 산비탈 길가 양쪽에 한줄로 주택이 있는 빈촌으로, 트럭운전수 숙소에서 숙식하되, 저녁을 나가서 잘 먹었다. 산간오지 빈촌에도 가라오케(노래방)가 있고 개방물결을 느낄 수 있었다. 전원이 그곳에 들어가 오랫동안 디스코를 추고 맥주 한잔씩 하고 나서 전원이 일어서서 아리랑을 힘차게 합창하니 다른 중국 젊은이들이 무슨 마음에서인지 우리에게 박수를 보내더라. 정전이 된 채 촛불아래서 축음기를 틀고 노래방을 즐겼다.

6월 24일 아침 8시에 장무의 중국 국경출입국 관리소의 출국수속을 맞쳤다. 친절하게 우리를 대해주었다.

지금까지 발표된 티베트산 버섯은 588종으로 신기록종은 13종, 티베트지구

특산 기록종으로는 115종이다.

이제 한국균학회가 신종발견에 나서 내년부터 실행한다. 또 역사적으로 한국이 중국으로 부터 현재 가장 대우받는 것은 경제협력국인 만큼 계속하여 존경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겠다.

티베트<Tibet>지방 버섯 채집 목록

-1997. 6. 11~27- 이지열

연오(然烏) - 파미

<i>Rhizopogon nigrescens</i>	큰알버섯 알버섯과 <u>담자균류</u>
<i>Kobayashia niponica</i>	흰찐빵버섯 어리알버섯과
<i>Lenzites betulina</i>	조개껍질버섯 구멍장이 버섯과
<i>Coriolus versicolor</i>	구름버섯 "
<i>C. hirsutus</i>	회구름버섯 "
<i>C. unicolor</i>	단색구름버섯 "
<i>Polyporus arcularius</i>	좀벌집버섯 "
<i>Schizophyllum commune</i>	치마버섯 치마버섯과
<i>Pluteus atricapillus</i>	난버섯 난버섯과
<i>P. atrofuscus</i>	흑갈색난버섯 "
<i>Hygrocybe imazeki</i>	황적색꽃버섯 벚꽃버섯과
<i>Marasmiellus nigripes</i>	검은대 선녀버섯 송이과
<i>M. chamaecyparidus</i>	삼나무선녀버섯 "
<i>Laccaria laccata</i>	줄각버섯 "
<i>Clitocybe fragrans</i>	흰갈매기버섯 "
<i>Mycena haematopoda</i>	적갈색애주름버섯 "

파미 - 린즈(林芝)지구

<i>Pholiota lubrica</i> ®	비늘버섯의 1종 독청버섯과
<i>Boletus griseus</i>	검정그물버섯 그물버섯과
<i>Inocybe lutea</i>	노란땀버섯 끈적버섯과
<i>Dermocybe sanguinea</i>	전나무끈적버섯 "
<i>Polyperellus brumalis</i>	겨울우산버섯 구멍장이버섯과

Calocera viscosa	등황색끈적싸리버섯 붉은목이과
Cordyceps sinensis [●]	중국동충하초 동충하초과 <u>자낭균류</u>
Usnea diffracta	소나무겨우살이 소나무겨우살이과 <u>지의류</u>

네팔<Nepal>지방

Clitocybe geotropa	굽다리 깔때기버섯 송이과
Oudemansiella platyphylla	넓은 솔버섯
Russula sp.	무당버섯의 1종 무당버섯과
Psathyrella candolleana	족제비눈물버섯 먹물버섯과
Hymenogaster arenarius	히메노가스터의 1종 히메노가스터과

● 중국특산

卯晓岚·蒋长坪(女医师, 退休) 欧珠次旺 著(1993) 西藏大型经济真菌, 北京科学技术出版社에 따르면 중국산 버섯류는

총 45과 175속, 588종 수록. 그 중 중국 신종 13종, 티베트 주 분포기록종 115종, 식용균 415종, 인공재배연구용균 55종, 독버섯 135종, 약용균 238종 중 항암작용균 168종, 외생균근균 188종, 목재부후균 123종.

아디카리(M. K. Adhikari)논문에 따르면(1991) 네팔의 총균류수는 다음과 같다.

표 1.

종류	속수	종수	신속수	신종수
점균류	34	146		11
편모·접합균류	33	100		-
자낭균류	149	276		40
담자균류				
균심강(버섯류)	165	441	1	25
녹균강	35	255		25
감부기균강	10	33		3
복균강	13	40		6
불완전균류	103	375	6	30
총계	542	1666	7	140